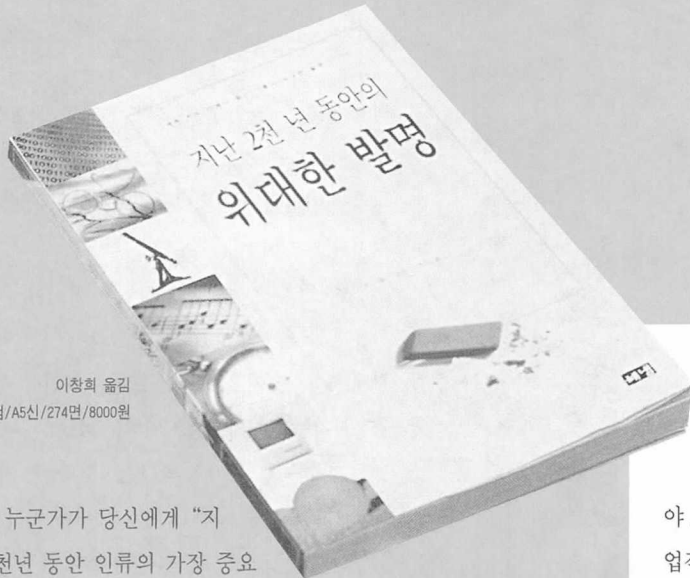


인류사를 뒤흔든 위대한 발명에 관한 보고서

존 브룩만의 《지난 2천 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을 읽고

홍유희 | 세민환경연구소 소장



이창희 옮김
해법/A5신/274면/8000원

존 브룩만은 석학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리고 전세계의 지식인들에게 숙제를 냈다. 지난 2천년 동안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발명품이 무엇인가가 그 주제. 세계 석학 110명이 제출한 리포트를 엮은 이 책은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난 2천년 동안 인류의 가장 중요한 발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자. 무심히 길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하고 즉석에서 대답을 요구한다면 글썽, 그것은 TV용 코미디리라. 그렇지만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까지 붙여서 한 달 후에 리포트로 제출하라고 했다면? (독자 여러분도 잠시 해답을 생각해 보시기를!)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시 한번 실험해 보기로 하자. 다음의 열 개 발명품 중에서 세계 석학들이 선정한 120대 발명품에 포함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찾아볼 것.

‘전등, 인쇄기계, 비행기, 지우개, 피임약, 말의 등자, 현대 도시, 돋보기, 시계, 거울’

현재의 시점은 21세기의 첫 해에 해당한다. 그런 시간대에서 우리는 만만년의 유구한 문화전통과 국민소득 일만달러에 달하는 경제력이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관념은 현재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자각을 갖고 있거나 한 것일까?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부 고관, 대학교수, 언론인, 기업인, 종교인들의 상당수도 21세기형 사회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또 답답해 하는 것이리라.

존 브룩만이라는 미국인이 있다. 이 사람은 본직이 출판인이지만 그 자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세계의 지성들을 만나 대화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책을 쓰도록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지성들을 한데 모아 현대 과학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주선하기도 하는 등 평범한 출판인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

야 보배다’는 말이 있다. 제 아무리 당대의 지성들이 자기 영역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룩했다고 해도 누군가가 그들이 성취한 일을 일반 대중에게 적절히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흩어진 낱알 구슬에 불과하다. 브룩만은 바로 그런 구슬들을 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인터넷에 전세계 석학들이 참여하는 토론 광장을 개설했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지성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으고 그들에게 바로 앞에서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많은 인사들이 브룩만이 요구한 숙제를 성실히 해서 냈다. 그리고 그들 그들이 제출한 리포트를 잘 다듬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바로 21세기의 문턱에서 과거의 두 밀레니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 밀레니엄을 조망하는 일로서 이보다 더 영양가 높은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

앞의 10가지 예들은 세계의 지성 110명이 뽑은 121가지 발명품에 모두 해당한다(글쓴이가 던진 질문에 대해 해답을 구하려고 머리를 썼던 독자들은 잠시 두뇌훈련을 했다고 생각하시기를). 지우개나 말의 등자가 인류 문명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발명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궁금한 독자라면 당연히 책방에 가서 이 책을 사볼 일이다.

그런데 정작 이 책을 엮은 브룩만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는 인간들이 서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교환하는 속에서 지성과 지성의 상호작용으로 더 큰 지성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 즉 분산형 지식 회로망(DNI, Distributed Networked Intelligence)을 꼽았다. 그 자신이 이런 DNI의 한 중요한 구성원임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식인과 지성인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지성과 지혜를 한데 묶어 대중에게 전달하는 열린 마음의 ‘지성중계자’ 또는 ‘지성종합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존 브룩만을 구구절절 소개한 이유다. ●